

# 《자유무역주의》정책을 합리화하는 부르조아 《기회비용론》과 그 반동성

김 은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착취계급의 탐욕적인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부르조아사상은 아무리 위선적인 말로 분칠하여도 자기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김정일선집》 제17권 증보판 132페이지)

현시기 제국주의나라들은 저들의 과학기술적우세를 떠들면서 무역을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예속과 략탈책동에 더욱 매달리고있다. 이것을 합리화하는 대표적인 제국주의무역정책의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주의》이다.

《자유무역주의》의 기본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여 서로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두 당사자들이 생산물을 자유롭게 교환하면 그 량자에 다 이익이 된다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생산토대의 수준과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무역거래에 참가하면 거래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리득이 차레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나라마다 자연지리적조건과 환경, 사람들의 경제생활방식과 기호가 서로 다르며 생산력과 과학기술발전수준이 차이나는 조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량과 질, 품종구성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이로부터 나라들사이에는 남이 요구하는것은 팔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수 없거나 적게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하여서는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로부터 대외무역이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매개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이룩해나가게 된다.

그러나 부르조아《기회비용론》에서는 기만적인 경제개념들을 도입하여 무역이 있게 되는 필연성을 외곡하고 부등가교환으

로부터 취득하는 리윤의 착취적, 략탈적본질을 은폐하려고 한다.

부르조아《기회비용론》에서는 무역거래의 필연성과 그 과정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리용한 상품생산에서의 《상대적우위》를 가지고 해설하고있다.

부르조아《기회비용론》에서는 《기회비용》이란 자기가 얻으려는것을 불가피하게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것의 가치로 규정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시 말하여 다른 생산을 포기하고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다른 상품의 가치로 규정되는 《비용》이라고 한다.

실례로 생산자 ㄱ과 ㄴ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다같이 쌀과 고기를 생산하고있다고 하자. 생산자 ㄱ는 8시간을 고기 생산에만 종사하여 24kg의 고기를 생산할수 있고 쌀생산에만 치중하여 48kg의 쌀을 생산할수 있다고 보고 생산자 ㄴ 역시 8kg의 고기 아니면 32kg의 쌀을 생산할수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생산자를 막론하고 어느 한가지 생산물만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다른 생산물의 생산을 진행할수 없다. 생산자 ㄱ는 고기 24kg을 생산하는 대신 48kg의 쌀생산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생산자 ㄴ는 32kg의 쌀을 생산하는 대신에 8kg의 고기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생산자 ㄱ에 있어서 고기 1kg의 《기회비용》은 쌀 2kg이 되며 반대로 쌀 1kg의 《기회비용》은 고기 0.5kg이 될것이다. 마찬가지로 생산자 ㄴ에게 있어서 고기 1kg의 《기회비용》은 쌀 4kg으로 되며 반대로 쌀 1kg의 《기회비용》은 고기 0.25kg으로 되게 된다.

이렇게 같은 생산물의 생산이라고 할지

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산환경과 조건에서의 차이로 하여 그 생산물의 《기회비용》은 서로 다르게 된다.

일정한 생산물의 생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기회비용》을 가지는 생산자가 그 생산물생산에서 《상대적우위》를 차지하기때문에 그 생산에 전문화되고 그것으로 무역에 참가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부르쥬아 《기회비용론》이다.

이대로 한다면 생산자 1은 생산자 2에 비해 고기생산에서 《상대적우위》를 가지며 생산자 2는 생산자 1에 비하여 쌀생산에서 《상대적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생산자 1은 고기생산에 전문화되고 생산자 2는 쌀생산에 전문화되어야 한다.

부르쥬아 《기회비용론》에서는 각이한 생산능력과 토대를 가진 두 당사자가 서로 생산에 전문화되고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무역거래를 진행하면 총체적인 생산물량이 늘어남으로써 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한다고 설교하고있다.

부르쥬아 《기회비용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원리적으로 보면 무역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가치에 기초하여 등가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호상 리득이 차례질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경제법칙이다.

그러나 부르쥬아 《기회비용론》에서는 비과학적인 《상대적우위론》을 내세우면서 부등가교환의 경제적기초인 편파적인 국제분업체제를 합리화하고있다.

이 리론에 따르면 발전도상나라들은 주로 생산의 기술수준이 낮은 1차산업부문이나 전통적산업부문들에서 《상대적우위》를 차지할수밖에 없다.

실례로 자본주의나라 《가》와 발전도상나라 《나》가 있는데 이 나라들에서 다같이 쌀과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보자. 생산국 《가》는 1년에 쌀 5만t 혹은 자동차 7만대를 생산하고 생산국 《나》는 쌀 3만t 또는 자동차 2만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두 나라에 있어서 매개 생산물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매 생산물생산에 대한 두 나라의 기회비용

	1만t의 쌀	1만대의 자동차
생산자 《가》	7/5만대의 자동차	5/7만t의 쌀
생산자 《나》	2/3만대의 자동차	3/2만t의 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쌀 1만t을 생산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보면 생산국 《가》는 7/5만대(1.4만대)의 자동차이며 생산국 《나》는 2/3만대(약 0.67만대)의 자동차라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1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생산국 《가》는 5/7만(약 0.71만)t의 쌀이 《기회비용》으로 들게되며 생산국 《나》는 3/2만(1.5만)t의 쌀이 《기회비용》으로 든다.

자본주의나라 《가》는 자동차생산에서 발전도상나라 《나》보다 상대적으로 《기

회비용》이 작기때문에( $0.71 < 1.5$ ) 이 생산에서 《상대적우위》를 차지하며 발전도상나라 《나》는 쌀생산에서 자본주의나라 《가》보다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기때문에( $1.4 > 0.67$ ) 이 생산에서 《상대적우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나라 《가》는 자동차생산에만 전문화되고 발전도상나라 《나》는 쌀생산에만 전문화되어야 하며 그들은 각각 그것을 가지고 국제무역에 참가해야 한다는것이 《기회비용론》이다.

결국 부르쥬아 《기회비용론》대로 한다면 제국주의나라들은 《상대적우위》를 차지하는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산업들과 3차산업들을 위주로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무역거래를 진행하며 반대로 발전도상나라들은 1차산업부문, 전통적산업부문들에서 《상대적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문만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무역거래에 나서야 한다.

제국주의나라들은 생산과 무역거래 전과정에 발전도상나라들보다 언제나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대외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폭리를 얻게 된다. 반면에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경제건설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 심각한 환경문제와 함께 사회적 빈궁문제를 피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차이가 더욱더 심해지게 된다.

이것은 부르쥬아경제리론이 편파적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를 통하여 저들의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합리화하는 이론적도구로 철저히 복무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부르쥬아 《기회비용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의 길로 나아가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저들의 경제적예속밑에 두려는 교활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데 있다.

경제적자립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독립을 이룩한 발전도상나라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기때문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적토대와 생산력

발전정도에 있어서 덜 발전된 부문들이 적지 않다.

부르쥬아리론대로 한다면 이 나라들에서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들만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농업부문들과 채취공업부문들을 비롯한 1차산업부문들이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고 나라의 자위적국방력도 강화할수 없으며 나라들사이의 민족적불평등도 해결할수 없다.

경제적자립문제는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군사적침략과 경제예속화책동이 강화되고 자본주의경제위기가 세계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의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부르쥬아 《기회비용론》에서는 《자유》 무역의 우월성을 떠들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포기하고 경제를 개혁, 개방하여 국제분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이 리론에서는 그 어느 나라이건 일정한 제품의 생산에만 전문화되어야 하며 그것을 가지고 대외무역에 참가하여야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계급 투쟁을 포기하고 경제적자립을 위한 토대를 축성할수 없게 하며 그들을 략탈적인 국제무역에 끌어들여 저들의 영원한 경제적부속물로 만들려고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경제지배책동을 합리화하면서 그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고있는 부르쥬아경제리론의 반동적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체의 경제리론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